

취학 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The Effect of the Parent Variables,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Social Support on Poverty in Early Childhood*

김정미(Jeong-Mee Kim)¹⁾

곽금주(Keumjoo Kwak)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maternal interactive styles, parenting stress,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social support on poverty in early childhood. Participants consisted of 145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Seoul and Kyounggi Province. Data included videotaped observations of parent-child play and standardized measures of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home environment, and child development. Results of the t-test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ather's age and education, mother's age and education, and income over the variable of poverty.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variance in children's development.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e were supportive of the hypothesis that home environment moderates the impact of poverty on children's development.

Key Words : 빈곤(poverty), 어머니의 반응성(maternal responsiveness), 부모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가정환경 자극(home environment stimulation),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I. 서론

아동초기 특히 3세 이전에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아동후기나 청년기 보다 아동의 뇌 또는 신경

계 능력과 사회-정서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 확립 발달에 결정적 시기인 것으로 보고되어왔다(Bornstein & Sigman, 1986; Chugani, Phels, & Mazziota, 1987; McCormick, Brooks-Gunn, Workman-

* 이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05-JO9502).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eumjoo Kwak, The Dep.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6, Korea
E-mail : kjkwak@snu.ac.kr

Daniels, Turner, & Peckham, 1992; McEwen & Stellar, 1993; Rutter, 1990; Sroufe, 1979). 또한 빈곤은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는 아동의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과 어머니의 심리적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긴장상태는 부모로 하여금 우울증 또는 분노나 적개심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감정을 이끌어냄으로서 궁극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아동에 대한 부모역할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Conger et al., 1992; 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심리적인 면에서 우울한 상태의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아동의 언어생산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bara & Meredith, 1995; McLoyd, 1990).

가정의 소득 수준은 빈곤한 환경은 물론 부모의 인지수준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학습기회를 상실케 하여 어린 나이부터 열악한 인지적 자극 환경에 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의 전반적인 영역 즉, 신체적 건강, 인지능력, 정서행동발달,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Brooks-Gunn & Duncan, 1997; Neisser et al., 1996; Ramey, Yeates, & Short, 1984).

한편,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과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빈곤층 어머니들은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내고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양육방식은 순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cLeod & Shanahan, 1993).

가족과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매개적(mediate)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발달과 상관성이 있었다(Dunst, Trivette, & Jodry, 1997).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먼저, 아동이 인생 초기에 경험하는 물리적인 가정환경 자극은 아동의 지적, 언어적 발달과 학업 성취, 그리고 동기화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와 학령초기 빈곤 환경은 가정환경의 질과 물리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압박과 고통은 부모의 심리적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과의 온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아동발달에 효과적인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이후 인지적 발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영애·서용신, 1983; Brooks-Gunn, Klebanov, & Duncan, 1996).

빈곤에 대한 정의는 여러 접근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빈곤을 개념화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형태로 100% 전액에서 40%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 환경이 아동발달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시기에 있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초기 빈곤 환경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부모양육 스트레스,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 빈곤 환경이 과연 물리적 환경과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빈곤 환경에 따른 아동과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변인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둘째로 빈곤변인에 따라 아동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부모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셋째로 영향력이 예측된 변인들과 구체적인 아동의 사회성, 언어발달, 학습능력(글자와 숫자) 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및 일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 145명과 그 부모들이 참여하였다.

대상 아동 중 79명(54.5%)은 생활비 지원형태로 100%에서 40%까지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이고 그 외 66명(45.5%)은 생계목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들이었다. 대상아동은 해당 지역 보육시설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모집되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행동 평가척도(K-MBRS)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ahoney(1999)의 MBRS를 김정미·곽금주(2006)가 한국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어머니행동 평가척도(K-MBRS : 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K-MBRS는 12개 항목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하위요인은 1) 반응성행동 요인에 민감성, 반응성, 수용성, 즐거움, 온정성, 언어적 칭찬 항목, 2) 효율성행동 요인에 효율성, 표현성, 독창성, 보조 항목, 3) 지시적행동 요인에 성취지향성, 지

시성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아동 간 상호작용 행동은 부모와 아동이 자연스런 놀이 장면을 10분간 비디오 촬영한 자료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5점 평가 내용은 1점 매우 낮은 수준에서 5점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김정미와 곽금주(2006)의 표준화 연구결과,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2) 부모양육 스트레스(PSI)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Abidin(1990)이 개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경숙 등(이경숙·김현경·신운오, 2000)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8문항으로서 각각 24문항의 부모영역과 아동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영역의 문항은 부모의 ‘역할제한’, ‘우울’, ‘사회적 고립’, ‘부모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강화의 5개 하위 요인, 그리고 아동영역의 문항은 ‘수용성’, ‘주의산만’, ‘요구성’의 4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항상 그렇다’로 평가하며,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적임을 의미한다. 이경숙 등(2000)의 타당화 연구 결과,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부모영역이 .83, 아동영역이 .81로 나타났다.

3) 가정환경 자극 척도(EC-HOME)

가정환경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aldwell & Bradley(2003)가 개발한 3-6세용 가정환경 자극 척도(EC-HOME)를 김정미·곽금주(2007)가 한국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EC-HOME은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문항들은 ‘학습도구’, ‘학업적 자극’, ‘반응성

자극', '물리적 환경', '언어성 자극', '도구 다양성'의 6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여 평가한다. 김정미·곽금주(2007)의 타당화 연구 결과,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4) 사회적 지원

부모들이 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숙재(1997)가 사용한 '양육지원(12문항)' 중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위로부터 금전적·심리적 지지자, 조력자, 조언자, 상담자 등에 대해 인식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없다', '2점 거의 없다', '3점 있는 편이다', '4점 매우 많다'의 4점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원(6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5) 아동발달(K-CDI아동발달검사)

아동의 발달적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Ireton(1992)이 개발하였고 김정미·신희선(2006)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K-CDI아동발달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의 사회성, 자조행동, 운동발달(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언어발달(표현언어, 언어이해), 그리고 글자와 숫자발달에 관한 27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적으로 아동의 증상과 문제에 관한 30항목이 있다. 김정미·신희선(2006)의 표준화 연구결과,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95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본 대학교 아동심리발달 및 성장발육 사업을 위한 중단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일부

145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아동과 어머니는 본 대학교에 위치한 실험실에 방문하였다. 먼저 어머니는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질문지와 부모양육 스트레스, 가정환경 자극, 아동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부모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아동 간 상호작용 행동 관찰을 위한 비디오 촬영이 실시되었다. 부모와 아동은 제공된 장난감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하는 동안 약 10분간 비디오 촬영되었다. 제시된 장난감들은 다양한 조작능력, 문제-해결, 그리고 가장놀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들로서 실로폰, 그림책, 퍼즐, 인형놀이, 병원놀이, 공, 링끼우기 자동차 등 아동의 발달적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공되었다. 비디오 촬영 시 어머니는 제시된 장난감을 가지고 일상 중에 아동과 함께하는 방식 그대로 놀이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밖에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 평가절차는 Mahoney가 제안한 절차(Mahoney, Boyce, Fewell, Spiker, & Wheeden, 1998)에 따랐다.

4. 자료 분석 및 신뢰도

비디오 촬영된 자료는 30시간 이상 평가자 간 신뢰도 훈련을 받은 두 평가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자 훈련기준은 김정미·곽금주(2006)의 준거에 따랐다.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을 위해 전체분석 대상인 145명 중 약 27%에 해당하는 39명의 자료에 대해 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MBRS의 Kappa계수는 .69였다. 그리고 평가자 간 '정확한 점수 일치도'는 77.9%이었으며, '1점 점수 차이 내 일치도'는 98%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에 따른 변인들간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t*검증과 카이검정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사회적 지원, 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사회 인구학적 점수 차이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형태로 100% 전액에서 40%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고 가정을 빈곤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n*=79)중 34명(43%)은 전액 지원, 33명(41.8%)은 70%지원, 8명(10.1%)은 40%지원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의 빈곤 정의에 따른 대상 아동, 부모, 및 가족 특성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검정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한 결과에 의하면, 먼저 빈곤 변인에 따라 부모의 학력과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1). 가족 변인에서는 월 평균소득과 주 소득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이었으며(*p*<.01), 전체 거주 가족 수와 자녀수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2. 아동, 부모, 가정환경 자극 및 사회적 지원 변인 간 차이 비교

빈곤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부모양육 스트레스,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 그리고 아동발달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 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빈곤에 따라 아동, 부모, 가정환경 자극

<표 1> 대상자 특성 비교 (N=145)

	전체	빈곤 (<i>n</i> =66)	빈곤 (<i>n</i> =79)	χ^2/t
아버지				
연령 <i>M</i> (<i>SD</i>) ¹⁾	36.6(4.9)	37.6(4.9)	35.8(4.9)	2.21*
학력 ²⁾				50.00***
중졸이하	1(0.7)	-	1(1.3)	
고졸	59(40.7)	9(13.6)	50(64.1)	
대졸이상	72(49.7)	53(80.2)	19(24.3)	
어머니				
연령 <i>M</i> (<i>SD</i>) ¹⁾	33.8(4.2)	35.0(3.8)	32.7(4.3)	3.26***
학력 ²⁾				57.20***
중졸이하	3(2.1)	-	3(4.0)	
고졸	63(43.4)	11(17.5)	52(69.3)	
대졸이상	72(49.7)	52(82.6)	20(26.7)	
아동				
성별 ²⁾				1.04
남	66(45.5)	27(40.9)	39(49.4)	
여	79(54.5)	39(59.1)	40(50.6)	
가족				
월평균소득(원) ¹⁾	301.0 (198.7)	415.6 (193.6)	202.4 (144.6)	7.40***
거주가족수 ¹⁾	3.99(.90)	4.02(.79)	3.97(1.0)	.08
주소득원				13.92**
아버지	116(81.7)	54(81.8)	62(81.6)	
어머니	8(5.6)	-	8(10.5)	
부부	16(11.3)	12(18.9)	4(5.3)	
조부모	2(1.4)	-	2(2.6)	
자녀수 ²⁾				3.61
1명	25(17.2)	13(19.7)	12(15.2)	
2명	98(67.6)	47(71.2)	51(64.6)	
3명	22(15.2)	6(9.1)	16(24.2)	

p*<.05 *p*<.01 ****p*<.001

¹⁾ 아버지와 어머니 연령, 월평균소득, 거주가족수는 *M*(*SD*)점수에 대한 *t*검증 값임.

²⁾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 아동 성별, 자녀수는 빈도에 대한 카이검정 값임.

및 사회적 지원 변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부모 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상호

〈표 2〉 빈곤에 따른 변인 간 비교

(N=145)

	M(SD)			t
	전 체	비빈곤 (n=66)	빈곤 (n=79)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K-MBRS)				
반응적행동	3.01(.49)	3.16(.46)	2.88(.48)	3.56***
효율적행동	3.09(.55)	3.22(.63)	2.98(.45)	2.68**
지시적행동	2.36(.80)	2.48(.85)	2.25(.74)	1.70
부모양육 스트레스(PSI)				
부모영역 총점	44.24(12.12)	40.6(10.06)	47.4(12.91)	-3.32***
역할제한	9.01(2.9)	8.5(2.9)	9.4(2.8)	-1.92
우울	15.2(4.8)	13.8(3.7)	16.3(5.4)	-3.16**
사회적 고립	12.2(4.0)	10.9(3.1)	13.3(4.3)	-3.74***
부모건강	6.1(2.3)	5.5(2.0)	6.6(2.4)	-2.97**
배우자와의 관계	8.0(3.6)	7.3(3.1)	8.6(3.9)	-2.20*
아동영역 총점	45.56(11.34)	43.5(9.8)	47.2(12.3)	-1.92
부모강화	7.5(2.1)	7.4(1.6)	7.7(2.5)	-.89
수용성	14.8(4.2)	13.8(3.5)	15.6(4.6)	-2.58**
주의산만	8.0(2.8)	7.5(2.2)	8.5(3.1)	-2.21*
요구성	15.2(4.8)	14.6(4.4)	15.8(5.2)	-1.47
사회적 지원	2.8(0.6)	17.8(1.5)	16.6(3.0)	2.97**
가정환경 자극(HOME)	22.7(4.2)	25.1(3.0)	20.9(4.2)	6.44***
아동발달(K-CDI)				
전체발달	15.0(2.9)	49.4(9.2)	42.1(7.7)	5.20***
사회성	49.6(18.7)	58.5(16.8)	42.2(16.9)	5.82***
언어발달	46.92(12.73)	53.26(11.93)	41.63(10.87)	37.65***
글자와 숫자	43.78(8.36)	46.58(8.31)	41.44(7.70)	14.89***

*** $p \leq .001$ ** $p < .01$ * $p < .05$

작용 행동에 있어서 빈곤 가정 보다 비빈곤 가정의 어머니들이 반응적 행동과 효율적 행동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하위 항목을 보면, K-MBRS 12개 항목 중 8개 항목 즉, 민감성($t=2.98, p < .01$), 반응성($t=3.92, p < .001$), 즐거움($t=2.31, p < .05$), 언어적 칭찬($t=2.31, p < .05$), 효율성($t=2.14, p < .05$), 표현성($t=3.04, p < .01$), 독창성($t=2.31, p < .05$), 성취지향성($t=2.32, p < .05$)에 있어서 비빈곤 집단 어머니가 빈곤 집단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부모양육 스트레스를 보면 부모영역에 있어서 우울($t=-3.16, p < .01$), 사회적 고립($t=-3.74, p < .001$), 부모건강($t=-2.97, p < .01$), 배우자와의 관계($t=-2.20, p < .05$)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동영역에 있어서 수용성($t=-2.58, p < .01$), 주의산만($t=-2.21, p < .05$)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빈곤 집단 어머니가 비빈곤 집단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 스트레스의 점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빈곤 집단 어머니들이 비빈곤 집단 어머니들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원 변인을 보면, 생활 주변에 자신을

<표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145)

	1	2	3	4	5	6	7	8
1. 월평균소득	-							
2. 어머니 학력	.47***	-						
3. 어머니의 반응성	.04	.22**	-					
4. PSI : 부모영역	-.22**	-.17	-.17	-				
5. PSI : 아동영역	-.06*	-.19*	-.20*	.61***	-			
6. 가정환경 자극	.37***	.43***	.24**	-.31***	-.24**	-		
7. 사회적 지원	.09	.25**	.21**	-.47***	-.34***	.50***	-	
8. 아동 발달 : 전체	.23**	.38***	.01	-.15	-.25**	.44***	.27***	-

*** $p \leq .001$ ** $p \leq .01$ * $p < .05$

지원하고 있는 자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97, p<.01$), 빈곤 집단 어머니들은 비빈곤 집단 어머니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에 대한 충고자, 조언자, 또는 조력자원이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가정환경 자극에 있어서는, 6개 하위요인 즉, 학습 자극, 학업적 자극, 반응성, 물리적 환경, 언어성 자극, 도구 다양성 자극 전반에 걸쳐 비빈곤 집단이 빈곤 집단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높았다($t=6.44, p<.001$). 또한 아동발달의 전체 점수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5.20, p<.001$), 하위 발달영역 별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아동의 사회성($t=5.82, p<.001$), 언어 영역에서, 표현언어($t=6.08, p<.001$), 언어이해($t=5.10, p<.001$), 글자($t=3.11, p<.001$)와 숫자($t=5.20, p<.001$) 전 발달영역에 걸쳐 비빈곤층 아동이 빈곤층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다.

3. 아동발달에 영향력 있는 예측 변인 탐색

본 연구에서 문제제기한 변인들에 대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변인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제외하고 유의한 상관이 관찰된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발달 전체점수는 월평균소득($r=.23, p<.01$), 어머니 학력($r=.38, p<.001$), 부모양육 스트레스 : 아동영역($r=-.25, p<.01$), 가정환경 자극($r=.44, p<.001$), 그리고 사회적 지원($r=.27, p<.001$)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요 변인들에 대해 사회 인구학적변인,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 그리고 부모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반응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위계적(hierarchical)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요 변인들에 대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 별로 아동발달 전체 점수에 대한 주요 변인들의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빈곤 집단의 경우 아동발달 전체점수에 대해 어머니 반응성은 약 7%(Beta=-5.15, $p<.05$), 부모양육 스트레스 아동영역은 약 8%(Beta=-.23, $p<.05$), 사회적 지원은 약 8%(Beta=1.82, $p<.05$), 그리고 가정환경 자극은 약 9%(Beta=.99, $p<.0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빈곤 집단은 가정환경 자극

변인만이 아동발달 전체점수의 약 12%(Beta=.68, $p<.01$)를 설명하였으며 다른 주요 변인들은 아동발달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하여 1단계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빈곤 지수와 상관성이 높은 가족의 월평균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을 입력하였고, 단순 회귀분석 결과 아동발달 전체점수에 대해 두 집단 모두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가정환경 자극 변인을 2단계에 입력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 사회적 지원과 4단계에 부모양육 스트레스 아동영역을 입력하였고 마지막으로 5단계에 어머니의 반응성행동 요인을 입력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월평균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을 입력하였을 때, 이들은 아동발달 전체점수의 12%를 설명하였으며 $F(1,121)=7.92, p<.001$, 특히 어머니 학력은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월평균 소득과 어머니 학력 변인에 부가적으로 가정환경 자극 변인을 입력하였을 때 약 9%의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단계에 입력한 사회적 지원과 4단계에 입력한 부모양육 스트레스의 아동영역 변인은 약 1%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나 아동발달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 어머니의 반응성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약 2%의 부가적인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p=.06$).

4. 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 아동의 빈곤수준에 따라 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 전체에 대해 가장 예측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환경 자극에 대해 아동발달의 세

<표 4> 아동발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Beta	R ²	R ² change	F
1단계				
월평균 소득	.02	.12	.12***	7.92***
어머니 학력	.34***			
2단계				
월평균 소득	-.05	.21	.09***	9.77***
어머니 학력	.24*			
가정환경 자극	.32***			
3단계				
월평균 소득	-.04	.21	.00	7.41***
어머니 학력	.23*			
가정환경 자극	.29**			
사회적 지원	.07			
4단계				
월평균 소득	-.04	.22	.01	6.16***
어머니 학력	.22*			
가정환경 자극	.29**			
사회적 지원	.05			
PSI : 아동영역	-.09			
5단계				
월평균 소득	-.05	.24	.02(.06)	5.84****
어머니 학력	.24*			
가정환경 자극	.31**			
사회적 지원	.06			
PSI : 아동영역	-.11			
어머니의 반응성	-.16(.06)			

*** $p\leq.001$ ** $p<.01$ * $p<.05$

부 영역별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여부에 따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하위 발달영역은 K-CDI 아동발달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성, 언어발달, 글자와 숫자영역을 분석하였다. 언어발달영역은 K-CDI 아동발달검사의 표현언어와 언어이해 영역의 평균점수이고 글자와 숫자는 K-CDI 아동발달검사의 글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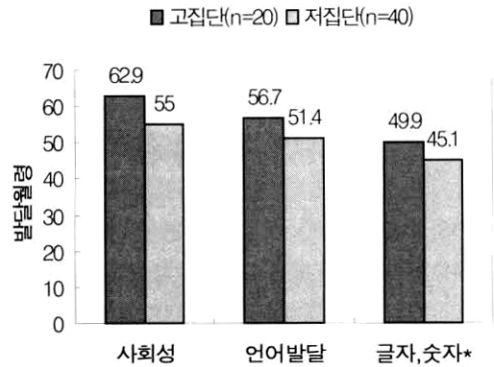
<표 5> 집단 별 아동발달에 대한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

종속 변인	집 단	모델 1		모델 2		모델 3	
		Beta	t	Beta	t	Beta	t
사회성	비빈곤	1.44	1.77(.08)	-	-	-	-
	빈 곤	1.00	2.12*	-	-	-	-
언어발달	비빈곤	-	-	1.47	2.66**	-	-
	빈 곤	-	-	.83	2.80**	-	-
글자와 숫자	비빈곤	-	-	-	-	1.19	3.10**
	빈 곤	-	-	-	-	.40	1.84(.07)
R ²	비빈곤	.05		.11		.14	
	빈 곤	.06		.0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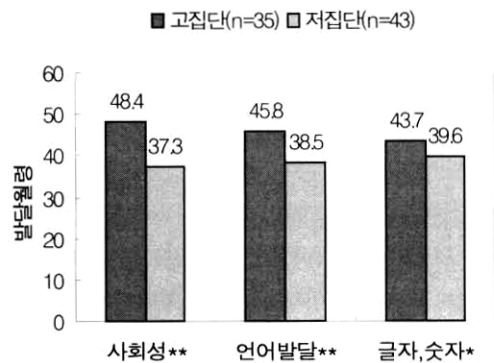
**p<.01 *p<.05

숫자영역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였다.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의 경우, 빈곤 집단(Beta=1.00, p<.05)이 비빈곤 집단보다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량은 약 1%로 높지 않은 정도였다. 언어 발달의 경우, 비빈곤 집단(Beta=1.47, p<.01)과 빈곤 집단(Beta=.83, p<.01) 아동 모두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이 예측되었으며, 비빈곤 집단은 약 11%의 설명량을 나타내었고 빈곤 집단은 약 9%의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글자와 숫자 발달의 경우, 비빈곤 집단 아동(Beta=1.19, p<.01)에게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의 경우 가정환경 자극에 대한 글자와 숫자 발달의 설명량은 약 14%였으며, 빈곤 집단의 경우 약 4%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환경 자극에 따라 비빈곤 집단과 빈곤 집단의 아동 발달영역별 영향력이 예측됨에 따라 부가적인 비교를 실시해 보고자 하였다. 즉, 비빈곤 집단과 빈곤 집단 별로 각각 가정환경 자극 척도의 평균 점수에 따라 (비빈곤 집단 M=25.1, 빈곤 집단 M=20.9) 두 집단으로 나



<그림 1> 비빈곤 집단의 가정환경 자극 수준에 따른 영역별 아동발달 비교



<그림 2> 빈곤 집단의 가정환경 자극 수준에 따른 영역별 아동발달 비교

누어 아동발달 하위 영역의 사회성, 언어발달, 글자와 숫자 능력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가정환경 자극 점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높은 발달 점수를 나타내었다. 주목할 것은 비빈곤 집단에서는 글자와 숫자 발달에서($t=2.13, p<.05$) 유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빈곤 집단의 경우 가정환경 자극 수준에 따라 사회성 ($t=2.75, p<.01$), 언어발달($t=2.95, p<.01$), 글자와 숫자 발달($t=2.43, p<.05$)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 집단의 경우 가정환경 자극에 따라 아동발달 수준에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발달전체 빈곤 : $t=3.98, p<.001$, 아동발달전체 비빈곤 $t=1.39,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부모양육 스트레스, 가정환경 자극 및 사회적 지원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에 따른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 및 부모의 심리발달 변인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연령과 학력,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가족의 주 소득원, 가족 월 평균소득은 빈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선행연구에서도 직접적인 경제적 지표 이외에 가족의 주 소득원에 대해 아버지의 역할 존재 여부가 아동의 빈곤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가정이 빈곤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Sandefur, McLanahan, & Wojtkiewicz,

1992; Willet, & Singer, 1991). 한편 아동의 성별, 자녀수는 빈곤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05$).

빈곤에 따라 아동발달 및 부모,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 변인 점수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에 있어서 비빈곤 집단 어머니들이 빈곤 집단 어머니들 보다 반응적행동과 효율적행동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빈곤 집단 어머니들은 빈곤 집단 어머니보다 자녀와 상호작용 할 때 아동의 행동이나 활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표현해주며 아동이 흥미롭도록 독창적인 놀이나 활동을 하며, 언어적 칭찬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어머니의 반응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주도성과 동기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지, 언어 및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으며(김정미, 2004; Dunst, et al., 1997; Mahoney, et al., 1988; Mahoney & Peralas, 2003), 또한 경제적 조건과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Brooks-Gunn, et al., 1996). 그러나 주목할 것은 본 연구결과에서는 비빈곤 집단 어머니는 빈곤 집단 어머니보다 지시적 행동 점수에서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서구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성취 지향성은 지시성 유형과 함께 어머니의 반응성을 방해하며,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와는 다른 결과이다(Bradley, 1995; Cambell, Goldstein, Schaefer, & Ramey, 1991; Margaret, Frances, Donna, Barbara, & Craig, 1997; Ramey, et al., 1984).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우울, 사회적 고립,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모영역에서의 부모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에 대한 수용과 주의산만에 대한 아동영역에서의 부모양육 스트레

스에 있어서 비빈곤 집단과 빈곤 집단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 집단 어머니들이 비빈곤 집단 어머니들 보다 우울과 사회적 고립, 건강의 문제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압박은 부모의 정신 건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Barbara & Meredith, 1995; Conger et al., 1992, 1994; Duncan, et al., 1994).

둘째로, 상관분석 결과에 따라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비롯하여 부모 변인으로서 어머니 반응성과 부모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환경 자극과 사회적 지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빈곤변인으로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직업, 학력 등 부모 변인 중 아동발달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 어머니 학력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으로서 빈곤에 연관성이 높은 <표 2 참조> 어머니 반응성 변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부모양육 스트레스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영역과 아동영역 변인 모두를 선택하였으나, 다중 공선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아동영역 변인을 선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단계 설정에서 1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입력하였고 2단계에서 5단계에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변인을 우선순위로 하여 입력하였다. 그 결과, 빈곤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인지수준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과(Brooks-Gunn, & Duncan, 1997; Neisser et al., 1996; Ramey, et al., 1984) 가정환

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장영애 · 서용선, 1983; Bradley & Caldwell, 1976).

세 번째로 빈곤에 따라 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탐색됨에 따라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력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 내에서 다시 가정환경 자극 수준을 집단 평균점수를 준거로 고 집단과 저 집단으로 나누었다. 비빈곤 집단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빈곤 집단 아동보다 가정환경 자극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총점 30점에서 21점 이상이 52명(78.8%), 11~20점 사이는 8명(12.1%), 그리고 10점 이하는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성, 언어발달, 글자와 숫자 발달 영역에 있어서 크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빈곤 집단 아동들은 가정환경 자극 점수가 21점 이상은 38명(48.1%), 11~20점 사이는 38명(48.1%), 그리고 10점 이하는 2명(2.5%)으로 비빈곤 집단과 비교할 때 분포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가정환경 자극은 아동의 사회성, 언어발달, 글자와 숫자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변인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빈곤의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예측된 빈곤에 따른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이 비빈곤과 빈곤 집단 아동의 발달에 매개변인 또는 중재 변인으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를 살펴보고, 또한 빈곤 집단의 경우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력을 완충할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대부분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결과에 있어서 부모

의 지시적행동 요인의 성취지향성 행동은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취지향성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문학적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정미(2004). 어머니의 반응적 상호작용 특성이 발달장애 아동의 포괄적 발달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3), 25-41.
- 김정미 · 광금주(2006). 취학 전 아동과 부모 간의 상호작용 행동 평가를 위한 K-MBRS와 K-CBR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9(4), 21-37.
- 김정미 · 광금주(2007). 3-6세를 위한 가정환경 자극 척도(EC-HOME)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8(1), 115-128
- 김정미 · 신희선(2006). **K-CDI아동발달검사**. 도서출판 : 특수교육.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 · 김현경 · 신윤오(2000). 한국형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11(1), 70-78.
- 장영애 · 서용선(1983).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와 학령전 아동의 발달 수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 1-10.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rbara, A. P., & Meredith. L. R. (1995). Maternal Correlates of Growth in Toddler Vocabulary Production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76(4), 763-782.
- Bornstein, M., & Sigman, M. (1986). "Continuity in Mental Development from Infancy." *Child Development*, 57, 251-74.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76).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Mental Test Performance at Fifty-four Months :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47, 1172-1174.
- Bradley, R. H. (1995). Home environment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Hillsdale, NJ : Erlbaum.
- Brooks-Gunn, J., &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and youth. *The Future of Children*, 7, 55-71.
- Brooks-Gunn, J., Klebanov, P. K., & Duncan, G. J. (1996). Ethnic differences in children's intelligence test scores; Role of economic deprivation, home environment, and maternal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7, 409-422.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ambell, F. A., Goldstein, S., Schaefer, E. S., & Ramey, C. T. (1991). Parental beliefs and values related to family risk indicators, educational intervention, and child academic compete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167-182.
- Chugani, H., Phelps, M. E., & Mazziota, J. C. (1987).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tudy of Human Brain Functional Development." *Annals of Neurology*, 22(4), 495.
- Conger, R. D., Conger, K. L.,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 Duncan, G. J., Brooks-Gunn, J., & Klebanov, P. (1994).

-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2(2), 296-318.
- Dunst, C. J., Trivette, C. M., & Jodry, W. (1997).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n Guralnick, M. J. (Ed.), *The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Brooks Publishing Co.
- Ireton, H. (1992). *Child Development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 Behavior Science Systems.
- Mahoney, G. (1999). *Family/Child Curriculum : A Relationship Focused Approach to Parent Education/Early Intervention*. Tallmadge, OH : Family Child Learning Center.
- Mahoney, G., Boyce, G., Fewell, R. R., Spiker, D., & Wheeden, C. A. (1988).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interaction to the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at-risk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 5-17.
- Mahoney, G., & Perales, F. (2003). Using relationship focused intervention to enhance the social emotional functioning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 77-89.
- Margaret, R. B., Frances, A. C., Donna, M. B., Barbara, H. W., & Craig, T. R. (1997). Early Intervention and Mediating Processes in Cognitive Performance of Children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8, 935-954.
- McCormick, M. C., Brooks-Gunn, J., Workman-Daniels, K., Turner, J., & Peckham, G. (1992). "The Health and Development Status of Very Low Birth Weight Children at School Ag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16), 2204-08.
- McEwen, B. S., & Stellar, E. (1993). "Stress and the Individual : Mechanisms Leading to Diseas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53, 2093-2101.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Neisser, U., Boodoo, G., Bouchard, T. J., Boykin, A. W., Brody, N., Ceci, S. J. Halpern, D. F., Loehlink, J. C., Perloff, R., Steinberg, R., & Urbina, S. (1996). Intelligence : Knowns and unknowns. *American Psychologist*, 51, 77-101.
- Ramey, C. T., Yeats, K. O., & Short, E. J. (1984). The plasticity of cognitive performance : Insights from preventive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55, 1913-1925.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edited by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and S. Weintraub.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efur, G. D., McLanahan, S., & Wojtkiewicz, R. A. (1992). The effects of parental marital status during adolescence on high school graduation. *Social Forces*, 71, 103-121.
- Sroufe, L. A. (1979). "The Conference of Individual development : Early Care, Attachment and Subsequent Issue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34-842.
- Willet J. B., & Singer, J. D. (1991). How long did it take? Using survival analysis i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In L. M. Collins & J. L. Horn(Eds.), *Best methods for analysis of change : Recent advances, unanswered questions, future directions*(pp.310-327).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